

21세기 건축의 새 장을 연 게티센터

Getty Center

자연과 예술, 인간 이상의 조화

박태형 / 재미건축가, First Enterprise 대표
by Arthur T.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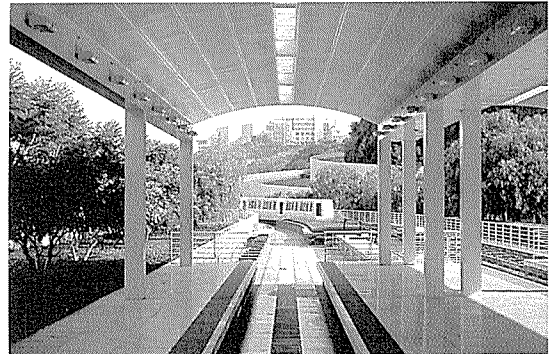
21세기의 문턱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를 근원지로 전세계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경제위기는 당장 한 고비를 넘어선다고 하여도 2~3년 동안은 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고, 이로 인하여 그 동안 한국의 건축업계를 비롯하여 한국의 주요 해외 건축시장이 되었던 동남아시아는 한동안 IMF의 한파를 겪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기간을 21세기를 향한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기로 생각하고, 선진 건축업계의 건축동향을 비롯하여 21세기 미래 건축수요의 방향을 파악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건축업계가 21세기에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미래 세계건축시장을 재석권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미국을 대표하는 건축가들의 건축동향은 21세기 건축업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최근 개관한 게티센터를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주>

리처드 마이어와 게티센터

1997년 12월 16일 로스앤젤레스 근교 산타모니카 말리부해안 산정 110에이커의 대지위에 석유재벌 장 폴 게티의 유산으로 센터 건립계획이 세워진 지 15년, 산아래 입구로부터 정지작업이 시작된 지 8년, 산정의 본건물 착공에 들어간 지 거



산타모니카 산위의 게티센터 전경(사진 : John Stephens)



산위 게티센터역 광장까지 왕복운행하는 무인전기전차
(사진 : Scott Frances/Esto)

의 5년이 된 총공사비 10억 달러 규모의 게티센터는 미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문화의 전당으로 문을 열어 세기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개관식은 20세기 미국 미술사상 가장 큰 이정표적 사건이자 1백25년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개관 이래 최대의 잔치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주지사가 참석한 최대의 행사였다.

새로이 문을 연 게티센터는 건축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관심을 끌게 하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21세기의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몇 가지 점에서 시사하고 있다. 즉 자연, 첨단 과학, 인간의 조화를 현대건축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많은 점을 시사하여 준다.

말리부 해안에 소재하여 있었던 게티 기존 박물관을 더욱 대중들과 가까이 할 수 있게 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학자들을 위해 교육 및 연구소, 보존기술 개발소, 박물관 등의 복합적 예술종합단지를 조성한다는 취지에 게티재단에서는 예술박물관 건축에 명성을 쌓아가고 있던 리차드 마이어를 게티센터 건립 책임건축가로 임명하였었다.

이미 헤이그 도서관과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애틀랜타 미술관(1980-1983), 독일 프랑크푸르트 미술관(1979-1984)을 건축한 바 있는 건축가 마이어는 이번 게티 센터를 두고 제9의 불가사의라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는데 흡족하고 있으며 생애에 있어서 의뢰받았던 건축설계 중 가장 위대한 작품이었다고 자평하였다. 또한 마이어는 1997년 미국 건축가협회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하였는가 하면 프랑스와 일본 정부로부터 그 생애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공로상을 받기도 하였다.

리차드 마이어는 게티센터 건축을 통하여 20세기 건축이 추구하여 온 완벽하고 세련된 선처리, 보석처럼 정밀하게 처리된 자재구성을 통하여 미래의 이상과 고대 및

19세기 근대 건축양식이 추구한 가치와 표현을 결합하고자 하였으며 거대한 캔버스와 같은 이 산정에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주제로 선을 특별히 강조한 건축물들은 산타모니카 능선을 본 딴 곡선과 눈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를 상징하는 직선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했다.

문화의 아크로폴리스

게티 센터는 기존의 박물관들과는 달리 로스앤젤레스 중심기에서 약간 벗어난 산타모니카 산위에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로스앤젤레스 시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경을 갖추고 있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건축양식에 드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만들어졌다. 선명한 파랑색과 백색의 대담한 조화, 사방으로 장애물 없이 탁 트인 해발 9백피트 산위의 건물들은 하늘만이 유일한 배경이어서 흰색건물이 마치 하늘위에 떠있는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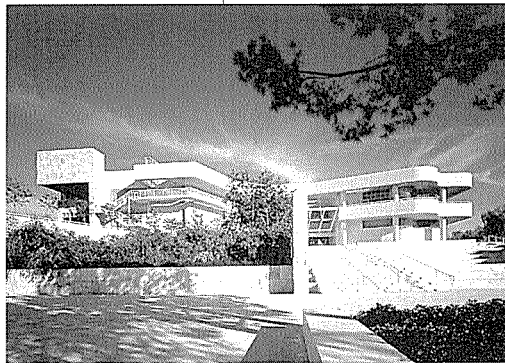
박물관은 입구와 안뜰을 중심으로 세워진 다섯 개의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빌딩들 사이사이로 도시의 전망을 엿볼 수 있다.

관람객들은 오리엔테이션 센터인 원형건물을 통해 박물관안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바로 이 곳에서 마이어의 현대주의적인 추상성을 엿볼 수 있다.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환상적인 빛, 높은 천장, 공간을 둘러싼 기둥들이 빛과 건축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조성하여 현대적이면서도 이태리 바로크 교회양식과의 유사성을 느끼게 해준다. 인테리어 장식은 감미로운 색상의 천으로 마무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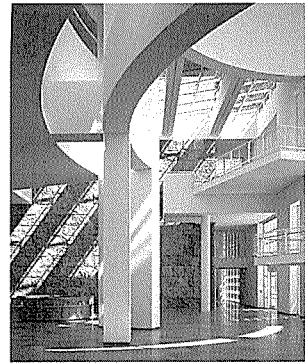
아울러 마이어 건축이 시도하고 있는 것은 보안과 미술품 보존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열린공간을 형성, 실내와 옥외의 개념을 헐고 건물의 안과 밖이 상호 연속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특히 전체 건축물 공간의 절반이상을



전차 도착지 광장(사진 : Scott Frances/Esto)



무인전차 도착지 광장에서 바라본 박물관입구 정면(사진 : Trom Bonner)



박물관 입구 홀(사진 : Scott Frances/Esto)

차지하는 미술관은 분수가 있는 안마당을 둘러싸고 전시관들이 위치하고 있어, 방문객들은 전시관에서 안마당으로, 안마당에서 전시관으로 드나들며 안과 밖의 개념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게티센터 건축을 위하여 인공 알루미늄 패널 Frame을 사용한 유리벽과 천연의 탄산석회 암벽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으며, 3만2천5백개의 나무잎 모양, 새깃털 등의 화석이 들어간 1만 4천톤 가량의 석자재가 이태리의 로마인근 티볼리항으로부터 파나마해협을 통해 로스앤젤레스로 수송되어 건물의 벽과 바닥, 회랑의 벽, 곳곳의 자연석 벤치로 이용되었다. 또한 25만개의 모래주머니가 투여되어 산등성위에 건축되는 건물 주변의 토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여 가히 문화의 아크로폴리스를 형성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든 미술관으로서 손색이 없는 웅장한 규모와 빼어난 예술성은 한편으로 자본주의의 위력을 실감나게 한다.

마이어의 건축과 함께 게티센터가 역점을 둔 것은 조경이다. 게티센터는 전체 대지 1백10에이커중 대부분을 산타모니카 산의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24에이커만 활용해 건축을 했는데 이중에서도 건평은 4분의 1에 불과, 나머지 19에이커는 중앙가든을 비롯한 드넓은 정원으로 꾸며졌다.

응용예술가 로버트 어윈이 디자인한 중앙가든은 원형경기장 모양을 한 13만 4천평방피트의 거대한 정원에 2천여종의 식물들을 심고 중앙의 양 옆으로 수로를 만들어 물이 흐르게 설계돼 있다.

이외에도 8천개에 달하는 각종 수목들로 조경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중앙화단은 아담과 이브의 에덴동산에 비유되고 있다. 94년의 노스리지 지진으로 공사가 지연되기는 했지만 10년여의 공사기간 끝에 웅장한 모습을 공개하게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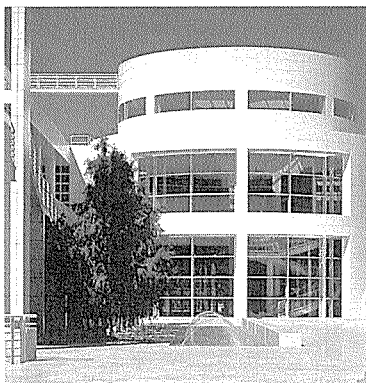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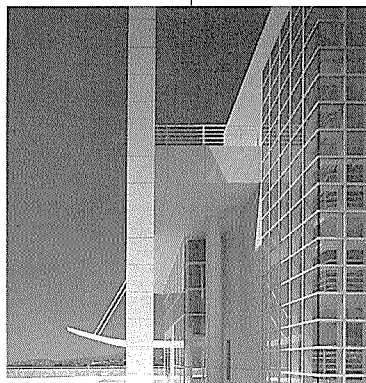
게티 센터에서는 마이어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고자 한 표현 노력이 특히 돋보인다.

첫째, 기존의 미술관, 예술관들이 위치한 장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도시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감상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시 전경을 건물내에서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설계하여 마치 산위에서 그대로 로스앤젤레스의 환상적인 모습을 보게 설계한 것이다. 마치 명상을 위하여 잠시 천상의 산위에 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아 온 자리들을 뒤돌아보면서 삶자체를 돌이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예술자체가 추구하여 온 정신적 자아완성의 세계를 건축물 자체로서도 만끽하도록 만들었다. 이를 위하여 언덕아래 지하주차장과 게티센터는 따로 분리되어서 산 아래에서 차를 주차한 방문객들은 천천히 움직이는 전차를 타고 5분 정도 산위를 올라가면서 주위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마치 속세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꼬불꼬불한 유선형의 노선을 타고 하늘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게 만들었다. 이 전차가 입구 플라자에 도착하여서야 비로소 거대하게 펼쳐진 게티센터의 웅장함이 펼쳐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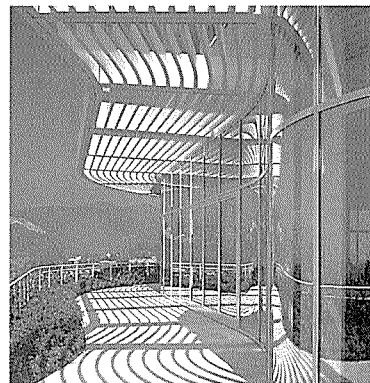
둘째, 게티센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첨단 과학장비들을 예술관 건축물들과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연결하여 놓았다. 즉 산위의 게티센터로 연결되는 무인 운전 전기전차를 비롯하여, 자연채광이 되도록 설계된 갤러리는 컴퓨터로 작동되도록 되어 있는 최첨단의 장비이다. 이 전차는 선로나 바퀴가 없다. 전기 모터를 통하여 생성된 공기를 팬케익과 같이 생긴 고무패드로 수직으로 내려보내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컴퓨터로 이동 조정되도록 된 3개 칸으



입구 원형 홀에서 바라본 박물관 안마당 (사진 : Alex Vertikoff)



오디토리엄(Auditorium) (사진 : Scott Frances/Esto)



산타모니카 산쪽을 향하고 있는 레스토랑/카페 내부 (사진 : Scott Frances/Esto)

로 된 전차가 공중에 부상되게 되면 산위에서 케이블로 끌어당겨 산위, 아래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시간당 1200명 정도를 실어 나르게 되어 있는 단거리 대중운송 양식은 세계에서 5개 장소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게티센터에서처럼 높은 경사각도가 이루어진 산기슭에 설치되기는 처음이다.

또한 게티센터의 각 건물들은 최고속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광섬유케이블이 깔려 있어서 비록 산위에 따로 떨어져 있지만 외부와 내부간에 정보 교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졌다. 첨단 컴퓨터 시설들을 통하여 전시되지 않은 작품들을 멀티미디어실에서 감상할 수 있게 한 것도 게티센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멀티미디어를 통한 작품감상 뿐만 아니라 전시되거나 전시되지 않은 모든 작품들의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어 있어서, 작품감상이 자료검색을 통하여 보다 완벽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첨단 기후조절장치야말로 게티센터의 문화재보호에 기울이는 최대의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냉방장치가 작동이 안되는 경우에도 화씨 72도, 습도 52%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3개의 공기정화 필터를 장착하여 먼저 30%정도까지 오염미립자를 걸러낸 후 두 번째 필터에서 95%까지 재정화를 하며 탄소필터를 이용 유해가스를 제거한다. 작품보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 가스는 건물내부의 작품자체, 페인트, 카펫, 세척제, 시설들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게티 보존연구소는 설치되는 모든 작품들과 시설물들에 대한 자체 검색을 통하여 100개에 달하는 유해가능 시설물, 작품들의 설치, 전시를 금지시켰다.

자연채광 시설의 사용은 여러 가지 면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 즉 태양광선이 갖고 있는 유해성을 극소화시키면서 2시간마다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채광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컴퓨터로 건물 천장에서 블라인드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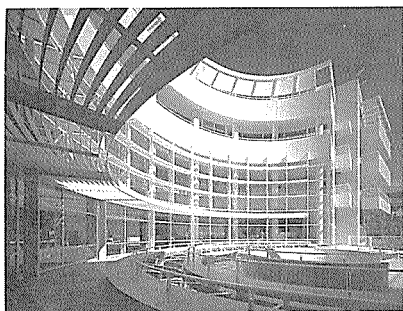
이를 통하여 갤러리내부에서는 200~250 룩스의 밝기를 항상 유지한다. 또한 벽에 설치된 태양열 포토셀이 태양 빛의 밝기 정도를 감지하여,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태양 열, 빛의 변화를 포착, 컴퓨터에 이 정보를 보내 천장의 채광블라인드의 각도를 조정하게 함으로써 2중으로 태양직사광선의 가능한 피해를 줄이도록 되어 있다. 컴퓨터에 필요한 각 방의 태양빛 자료들을 입력하기 위해, 수년 동안 각 방의 태양빛 각도, 직사광선의 열 정도를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이와 같은 장비들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만들어졌다.

스프링쿨러 시스템은 연기, 가스 감지시에는 신선한 공기가 나오지만 소화를 위한 물이 나올 준비가 되도록 작동된다. 만일 열이 감지될 경우에는 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예술품들이 탈색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 스프링쿨러 시스템에 항상 깨끗한 물이 순환되도록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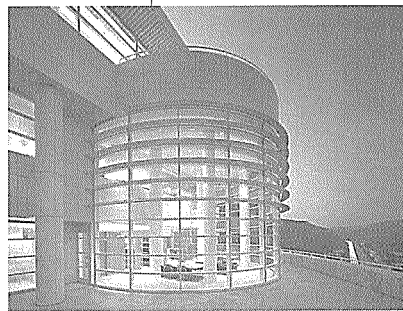
셋째, 각 건축물들은 자연채광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고대, 근대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 당시 자연채광 그대로를 통하여 작품들을 볼 수 있도록 갤러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각 건물들은 자연채광이 만들어내는 자연 그대로의 신비가 건물안으로 들어오도록 창문을 배치하였다는 점에서 게티센터의 건축은 리처드 마이어가 추구하려고 하였던 자연과 인간의 조화 노력이 다시 한 번 발현된 작품이다.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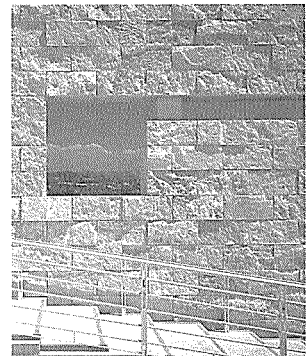
게티센터의 개관으로 이제 미서부도 미동부에 버금갈 수 있는 예술기반이 조성되었다. 특히 예술가, 건축가들은 21세기 건축의 방향을 제시한 게티센터에서 차세대 예술 및 건축의 새로운 태동을 기대하고 있으며 일반 방문객들에게는 문화적 개안을 돕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소(사진 : Scott Frances/Esto)



동쪽빌딩에서 바라본 독서실(Reading Room)테라스 야경(사진 : Scott Frances/Esto)



탄산석회암 벽 (사진 : Scott Frances/Esto)